





“법화경 수행”을 강조하는 경조 스님은 《법화경》이아말로 일체 경(經)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수승한 경전이라고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계속해서 낡은 것을 벗고 새 것을 얻게 됩니다. 이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열등한 것을 버리고 수승한 것을 취하는 것, 나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열등하고 나쁜 것을 버린다는 것에는 참회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알지 못하는데 올바른 취사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관보현경>에 ‘일체업장해 개종망상생 아욕참회자 단좌열심상 중죄여상로 해일능소제(一切業障海 皆從妄想生 若欲懺悔者 端坐念實相 衆罪如霜露 慧日能消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일체업의 장애는 모두 망상에서 일어난다.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하지 않아 실상을 염하라. 모든 죄업은 마치 서리와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해가 능히 없앤다’는 뜻입니다.

참회는 이기심을 버리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망상을 일으키고 그 망상에 매달리다가 한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

**참회 하지않고 이기심 못 버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살려면 자기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이지요.

<법화경> ‘여래수랑품’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두 아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가 돌아오자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만들어서 두 아들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독이 될 꽤 상태가 조금 나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약을 먹었는데, 상태가 심한 아들은 약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준 약을 먹고 병이 나아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증독이 될 뻔 아들은 부처님 제자고, 증독이 많이 된 아들은 증생을 말합니다. 증독이 심하다는 것은 마음의 때가 맑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 냐고 보면 부처님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의 때를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래도 자갈도 바위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지요. 불자들이라면 마땅히 증생을 구제하는 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도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선(小善)이 대악(大惡)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종교인이 자기 종교교만을 위한답시고 불교를 비방했다고 칩시다. 자기신념 측면에서 보면 충실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소의경전 갖고 정진해야**

있었지만 자기 종교를 위해 다른 종교를 비방했으니 결국엔 소선이 대악이 됩니다. 무던 같은 잘못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날카로운 칼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小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배(大善)가 되어야 합니다.

법회 때 어떤 학생이 “선과 악의 경계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지키면 선이고 다 범하면 악인 것입니다. 세간법에서는 개미를 죽이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 없을지 모르지만 출세간법에서는 큰 죄입니다. 작은 마음의 때라도 벗겨내야만 진정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겠습니다. 누가 “당신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소”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금주머니라도 금이 들어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평범한 주머니라도 금이 들어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금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금주머니가 됩니다.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의사불의(四依四不依)’이니,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 의의불의어(依義不依語) 의지불의식(依智不依識) 의요의경불의불요의(依了義經不依不了義經)을 말합니다. 그 뜻은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되 분별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진실된 경전에 의지하되 방편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공에 핀 꽃과 같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채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자란 것도 과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등한 세상에서 증상은 자비심을 잃고 번뇌 속에서 다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전쟁, 싸움, 비방, 폭력은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자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면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용서와 화합이 있습니다. 굳이 <법화경>이 아니라도 좋으니 자기가 믿고 공부할 수 있는 소의경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율해는 소의경전을 완벽하게 공부하겠다는 결심으로 정진하세요. 율 한 해는 부처님 마음을 깨내 쓰는 그런 해가 되어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기 바랍니다.

정리=한영우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지연 스님의 스님이아기**

설승 스님 (下)

노행자 설승 스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십년 전쯤의 일이다. 토굴을 끼고 있는 반송반어(半農半漁)의 어느 외진 마을, 거기 산자락에 열드려 있는 수도암이란 작은 암자에서였다.

도반 몇 명이 함께 꾸러가고 있던 그 곳에 설승 스님이 찾아 들었다. 저녁연기 스미듯 스며들었다. 초파일일 어마 남지 않아 아주 번다한 때에 그는 그렇게 와서 잠시 머물다 떠나갔다. 차를 나누며 스님은 그간의 행장에 대해 띄엄띄엄 얘기를 풀어놓았다. 종의 살림살이가 다 그러하지만 그 또한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산하대지를 떠돌아 다녔다.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하기도 하고 빈 토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종의 포교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맡아 보기도 하고...



그림·문병성

요즘은 경북 포항 오천이라는 곳에 있는 오어사라는 절 부근 후미진 화전민 마을에 터를 잡고 앉아 있다고 했다. 거기 비어있는 집을 하나 수리해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채소도 가꾸고 그러저럭 소일한다고 남의 얘기하듯 했다. 그런 생활이 몸에 익어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떠가는 조각구름을 무심히 바라보며 쪽마루에 걸터앉아 해바라기 하는 재미가 솔솔하며 웃었다. 한 두 집 남아 있는 화전민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산기슭의 확박한 농토를 일구며 산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다고, 심심하기도 적막하기도 어렵지도 않다고 했다. 어떤 때는 훌쩍 떠나 큰절 뒷방을 얻어 한 칠 지내기도 하고 선방에서 가부좌 틀고 안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화전민 마을의 움막으로 찾아들어 목을 발을 일구며 산다고 했다.

“그대가 여기서 지내고 있다는 얘길 풍문에 듣고 한 번 들러 봤네. 참 좋아 보이는데, 그래.”

이런히 맑은 목소리, 맑은 눈매의 스님은 조금씩 여유롭게 차를 마셨다. 농부같기도 하고 선승 같기도 한 노행자 설승 스님, 그가 내 앞에 앉았다는 게 세상 신기하게 느껴졌다.

철석철석 파도소리가 들었다. 해풍이 창호문을 흔들며 지나갔다. 바닷가 살림살이도 괜찮은

것 같군. 그래, 종은 그저 제 맛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철석거리는 파도소리에 해풍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갱반 위에 놓인 굴 하나를 꺼서 입에 넣었다. 여기 수도암에서 한철 같이 지내보자고 그러자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 해 짝 떠돌았으니 이제 포항 어디쯤의 자기 움막으로 돌아갈까 한다고, 거기 가서 새롭게 땅을 일구며 사는 데까지 살아볼까 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잘 주무시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객실까지 스님을 안내하고 돌아 나오면서 나는 멀리서 깜박거리는 등대를 바라보았다.

등대... 우리에게 등대는 있는 것인가. 물론 있다, 있고 말고,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 등대가 아닌가. 그 등대를 의지하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험한 물결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닌가.

먼 바다에 점점이 어화(漁火)가 떠있었다. 밤이 깊어 가는데도 생업을 위해 잠 못 자고 떠 있는 어부들의 삶이 바다 위에서 깜박이고 있었다. 그들 아내의 아이들의 삶이 어화로 남아 깜박이고 있었다. 철석철석 파도소리가 들었다. 소금끼 실

**구름처럼 토굴로 선방으로 유유히 흘러가듯 수행**

린 해풍이 뜨락의 나뭇가지들을 뚫고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다. 등대... 그리고 점점이 어화가 떠 있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장삼처럼 서 있었다.

어촌 마을은 불심이 깊다. 바다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옛부터 불심이 깊게 마련이었다. 고기 잡으러 바다로 떠난 남장네들의 무사귀환을 위하여 바닷가 마을 아낙네들은 늘 부처님께 기도했다. 부처님께 기도드리기도 하고 남근을 깎아 굴비 두름처럼 새끼줄에 엮어 걸어 놓은 해신당(海神堂)에 기도드리기도 했다. 그들에게 있어 절의 법당과 해신당은 하나였다.

그래서 작은 어촌의 작은 암자의 초파일도 조금은 불된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조금은 들쭉거린다. 노행자 설승스님도 절마당의 여기저기를 바쁘게 다니며 연등을 걸고 촛불을 켜고 장난질치는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그렇게 꼬박 밤을 밝혔다. 어수선하고 들쭉거린 초파일을 지낸 뒷날 아침, 노행자 설승 스님은 내게 작별을 고했다. 그만 떠나가 보겠노라고, 잘 지내시라고 합장하며 미소 띤 얼굴로 작별을 고했다.

그와 작별한 지 이십 년 좀 지난 오늘이 이 새벽 나는 그가 그리다. 하늘 가득 밤이 초롱초롱하다. 이 새벽에 그는 깨어나 내가 머물던 곳, 철석이는 파도소리가 갯전을 때리는 저 바닷가 해변 마을의 조그만 암자를 기억하며 앉아있지나 않으신지. 그 암자의, 조금은 들쭉거리는 초파일 밤을 기억하며 노승(老衲)처럼 설승(雪松)처럼 앉아있지나 않으신지...

■ 불화 청량사 주지

**3차 성명서**

무속인이 사암을 사칭하며 불상을 모시고 당당을 하고 있다. 사암은 절이라고 한다. 무속인이 절을 사칭함은 범법이며 탈법이다. 무속인은 부처를 모시지 못하며 사암을 사칭 못하며 만자기도 달지 못한다. 이러한것이 범법에 적용된다. 사원초파일에 등단과 무속행위를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법에 제소 할 것이다. 2월 25일까지 대표나 대변인은 해명바란다. 해명이 없을 시 법에 제소 할 것이다.

불교발원연구협의회 대표 상산 해광 법광 해만 법상 해우 법행 법경 011-9836-9561 / 팩스 043)732-9561

**취 지 문**

다양한 종파가 난립할 것이다. 가짜 상표가 진짜를 능가 할 것이다. 무속인이 불가를 곤욕스럽게 하며 망칠 것이다. 현실점에서 불가와 무속의 조례를 헌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뜻을 가르치시는 스님들께서 종파초월해서 범불교 발전 연구협회를 법인체로 발전해야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여해주시고 방향을 제시 해주신 큰스님 사암주지스님 신도회장님 수많은 스님께 감사합니다. 입회 또는 문의사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병규모(약 7명) 24실(각실 인터넷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이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경전으로 마음을 닦으며 넓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양생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음을 지광원에서 경험할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등 주변의 가족발원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지손들에게는 호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사이바님, 모시기가 어려운 분 지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뢴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목대성(眞木大聖)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지은 천년화회지(無知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목대성(眞木大聖)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을심(乙心)사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절경지로, 근처 10분거리에는 선사(仙師)와 망해사(망해사)사승(僧) 선별교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시류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행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가가 용이 합니다
- 방생을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시찰111호) 성모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오시는 길